

성도의벗

물몬경特輯

4월호



하늘에서 온 천사 오랜침묵 깨고  
저 은혜로운 말씀 하강하시어도다  
쓸쓸한 구모라산에 거룩한 기록물혔다  
쓸쓸한 구모라산에 거룩한 기록물혔다

모로나이 봉한것 오래 물혔다가  
땅에서 말하라는 주의명령 기다렸네  
그리스도 다스림을 안내하러 다시 나왔네  
그리스도 다스림을 알리러 다시 나왔네



卷頭言



물론경이 전세계에 제의하는것

袁一文 宣教 部長

만일 누가 몰몬경에 대한 선교사의 설명을 비웃는다면 몰몬경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 없이 지껄여야 하며 결국 범속한 자기 노력과 재능을 토대로하는 거짓 공업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제조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하여 모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몰몬경은 감히 전 세계에 몰몬경과 같은 저서들 한번 모방해 보라고 제의하고 있습니다.

몰몬경이 아래에 수록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라, 만일 누가 이와 비슷한 기록을 모방 제조하려고 한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필히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 제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1. 기원전 2,200년으로부터 주후 400년간의 고대 티베트 역사를 기술할 것. 왜 티베트 역사를 하필? 아마 당신은 요셉 스미스가 고대 미대륙에 대하여 지녔던 지식보다는 티베트에 관하여 더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2. 당신은 23세라야 한다.
3. 정규 교육은 3년이라야 하며 당신의 생애는 수풀속 농장에서 보내졌어야 한다.
4. 당신의 기술은 현재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당시 요셉 스미스에게는 지식을 제공할 만한 도서실이 없었다. 조력자를 쓸 수 없다. 아무것도 얻구해서는 안된다.
5. 저서가 522페이지라야 하고 300,000어를 수록해야 한다.
6. 문벌의 수정은 약간 가할 수 있으나 내용의 교정은 없어

야 한다. 맨 처음으로 서기를 시켜 답고한 그것이 영원히 불변해야 한다.

7. 이 역사 기록은 동 시대의 수개 민족 및 지파의 역사와 더불어 분명히 서로 다른 두 나라의 역사를 포함해야 한다.
8. 이들의 종교, 경제, 정치, 사회문화와 구조를 설명해야 한다. 동전의 이름에 이르기 까지 그들의 사회의 세부들 묘사해야 한다.
9. 율법을 여러번 바꿔야 한다. 고대 여러 선지자들이 각기 자기 나름의 율법으로 물론겜에 각 부분을 기술하였다.
10. 당신이 저술한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결합시키고 기독교적 생활 양상을 포함시키라.
11. 당신의 서술이 도덕적 가치로 보아 꾸며낸 거짓 이야기가 아니오, 참되고 성스러운 역사가 됨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12. 그 역사기록에 전쟁기사 54장, 역사기사가 21장, 시험과 예언의 기사가 55장을 포함해야 하며 여러분이 시험의 예언의 기사를 시작할 때는 그것이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 까지 성경과 일치해야 한다.  
이 외에 교리와 권고에 관하여 71장을 기술해야 하되 하나 하나를 점진으로 증거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당신의 것이 거짓임이 드러난다. 당신의 모든 간증에 대하여 21장을 기록하되 그 증거의 내용이 신약의 그것과 절대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13. 당신이 기록한 사실과 주장과 정의 가운데 많은 부분이 지배적인 세상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상의 신조가 더러 당신의 것엔 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14. 당신의 설명에 여행하는 방법이 분명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기록에 소개되는 고대민족이 불을 사용했는가 사용하지 않았는가?를 포함해야 하며 이들의 의상, 곡물, 통곡하는 풍속, 정부의 형태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밖에도 그들의 성격에 알맞아 여러해틀 두고 정확한 그들 고유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새로운 단어 280개를 발명해야 한다.
15. 당신은 평서술, 엄설형태, 직유, 대화체, 해설, 서사문, 구술 서사시, 서정시 논리, 비유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6. 가장 유능한 학자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당신의 작품을 철저히 조사 시험하게 하며 당신의 기록이 위조임을 증거하려는 자의 손에 틀림없이 전달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 기록에서 조그만 흠이라도 잡아내려고 애쓰는 자에게도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7. 앞으로 138년 동안 과학적 연구와 역사학적 고증 및 고고학적 반증을 들어 당신이 기술한 역사의 세목과 주장이 모두 참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밖에도 여러가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티베트 지하에 묻혀 있어야 한다.
18.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임을 밝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의 언어로 출판해야 한다.

19. 당신의 책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서로 상반되는 점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한곳에서 기록된 점의 차이가 책의 다른 부분과 상반되어서는 안된다.
20. 그 근본을 향하는 수 많은 원리 및 이념이 야기되어 근본되는 사실을 발견해내고 시험한 뒤에 잠잠해져야 한다. 당신은 여러분의 지식이 성스러운 곳에서 왔다고 주장했으며 이 주장은 설명이 가능한 한계내에서 하나의 주장으로 존재한다.  
이 주장의 능력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되어서는 안되며 그 자체의 논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증가되어야 한다.
21. 당신의 기록이 성경의 여러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되, 정확하게 성취시켜야 하며 어떻게 나타나 어떻게 전담되느냐 하는 문제와 그 목적 및 달성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22. 대낮에 하늘로부터 천사를 불러내려 여러분의 이웃중 정직하고 권위있는 네 사람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게 하라. 이 증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이익이나 사심을 생각지 않고 커다란 꾀박을 각오한 죽음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이를 간증해야 한다.  
당신은 이들 증인의 적이 될 사람들에게 이 증언을 내걸어 시험받게 해야 한다.
23. 앞으로 138년을 두고 세계에서 저명한 수천 위인과 지성인, 국제적 인물, 학자들이 당신의 역사를 받아드리되 그역 대한 간증을 위하여서 독숨이라도 버리겠다는 자세

로 받아 드려야 한다.

24. 당신의 기독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드시 첨가해야 한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25. 앞으로 138년을 두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시험하여 이 기록이 참됨을 알게된 수백만 시민이 이 책의 참됨을 간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이들을 확신시킨 그 진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26. 자기 생애의 2년내지 그 이상을 기쁘게 바쳐 세계 방방곡곡에 이 책을 전하겠다는 80,000이상의 해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은 다만 2년이나 그 이상의 봉사기간의 일체 경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이 자기들의 생애에서 가장 고귀한 시간이 되리라는 간증까지를 바친다. 이들은 노력의 댓가를 요구하지 않고 다만 여러분과 나의 기쁨으로 만족한다.

27. 당신의 책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현대에 있어서 가장 큰 도덕의 상징이 되며 윤리와 과감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것으로 재 정의된 세상을 이루어야 한다.

28. 앞으로 20년 동안 당신은 당신을 따르는 자,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꺾박당하여 쫓겨나고 못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하며 굶으며 얼어죽는 광경을 목격해야 한다. 수천 수만명이 당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신의 편견에서 극악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목격해야 한다. 바토 당신은 가장 악랄한 꺾박을 감내해야 한다.

이렇게 20년이 지나고 나서 당신은 당신의 역사책을 증거하는 간증으로 극히 야만적이요, 야수적인 방법으로 독숨을 잃게 됨을 허락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당신의 자의로 신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29. 이러한 2,600년간의 역사 기록을 지금 담장, 평확토운 불 위기가 아닌, 여러번 집을 쫓겨나고 튀쫓는 숨결이 금박한 삼짱에서 시작할 것.

책을 완성한 다음, 60일 안에 인쇄를 끝낼 계획하여 친구의 농장을 담보로 출판을 시작할 것.

결국 가능한 대답이 하나 있게 되는데, 불문경이 섬스러운 기록이라는 답변입니다. 만약에 불문경이 거짓된 것이라면 그 원본과 주장이 비평가들에 의하여 설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거부나 거짓이라든지, 아두것도 아닌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고대 기록을 시험함에 있어 우리가 해야할 첫번째 일은 발단의 빛과 그것을 주장하게 된 배경을 연구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배경에 부합한다면 역사적 반증이 불가능한 이상 그 이상을 살펴보려는 시도는 무익한 일일 것입니다.



豫言者의 말씀

# 信仰을 가르치라

大管長 데이비드 오·맥케이

우리 교회 회원은 모두 교사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교사는 신권회로부터 삼호삼사회, 주일학교, 초등학교, 상호부조회 등을 가르칠 임무를 맡는다. 가정 복음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웃과 이웃이 서로 방문하며 가르치고 섬교사들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르친다.

생애에 있어서 자기대로의 길을 열어나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다만 추종한다. 만일 교사나 지도자가 그릇되다고 한다면 그 추종자들은 거짓된 길로 이끌려 갈 것이요, 지도자가 올바르다면 진리의 길로 인도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를 보다 교사의 차원으로 인도하는 대부분의 책임은 교사가 지게 된다.

교사들에게 그대들의 책임은 순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 가르치는 것이다.

교리와 성약 가운데서 발견되는 가장 위대한 계시의 하나로(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를 "감람나무 잎"만큼 중시한다.) 이러한 구절이 있다.

"이제 모두가 다 신암을 갖지 아니 하였으니 너희는 부지런히 구하고 지혜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라.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고 신암으로 연구하여 배움을 구하라.

스스로를 가다듬고 요긴한 모든것을 준비하라. 기도와 금식과 신앙, 그리고 학문과 영광과 길서의 집인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그러하여 들고 남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며 너희의 모든 인사도 주의 이름으로 행하되 지극히 높은신 두손을 높이 치켜들고 행하라."(교성 88장 118-120절)

신앙이란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요, 무엇보다도 먼저 가르쳐 져야 한다. 그러면 신앙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우선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극진한 신앙을 가르쳐야 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조건하에 우리는 성령의 동반과 안내를 득할 수 있다.

모든 교사는 자기의 가르침을 받아 공평하게 그리고 대중가운데서 분업적으로 일하겠다는 결의를 갖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거의 절대의 사랑을 가져야 한다.

교사로서 성공하려면 완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공과를 공부하는 만큼 생도를 연구해야 한다.

복음의 교사는 소망에 찬 영혼에서 일어나오는 강제되지 않은 기쁨을 꼭 지니지 않



으면 안된다.

모든 교사는 참으로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 말씀하심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라"(요한 13장 15절)는 이야기들 감히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 여러분이 느끼는 바를 가르치되 스스로 모범을 행하여 가르쳐 빛을 사람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마태 5장 16절)

태양계에서의 근원이 태양이라면 육신의 그것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적, 영적 생활이어야 한다.

참된 행복을 구하고 생에서 성공하려하면 우리는 늘 구세주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 " ...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 6장 3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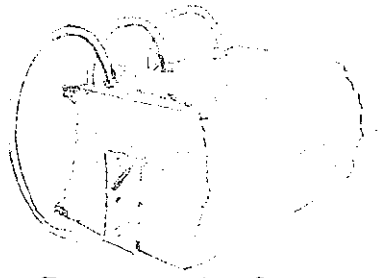
그러므로 훌륭한 교사는 가르친다는 것의 최상의 목표가 첫째 성도로 하여금 복음의 열매를 받게하고 이를 사람으로 공부하게 하는 것이요, 둘째 어떻게 공부할가를 가르치는 것이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을 갖게해 주며 이토써 내가 그의 불멸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한다.

인간의 전세에 관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로 기쁨을 갖는다. 나의 신앙은 나에게 있  
(57페이지에 계속)

特別座談會

# 물 묻 경



## 우리말로 출판되다

### 참 식 자

- |                              |                |
|------------------------------|----------------|
| 스펜서 제이. 팔머 (선교부장)            |                |
| 이. 에스. 씨션스 (선교부장 제1보좌)       |                |
| 셔리 에이치. 팔머 (지방부 삼호부 조 회 회 장) |                |
| 황오섭 씨 (보진제 인쇄소 대표)           | 한인삼 형제 (번역자)   |
| 최천용 씨 (함양 제본소 사장)            | 정대관 형제 (교정)    |
| 천낙서 장로 (선교사)                 | 정신자 자매 (타자수)   |
| 씨들 장로 (역사 기록 서기)             | 확이트 장로 (사진 촬영) |

곳 — 한국 선교부  
 때 — 1967년 3월 20일  
 사회자 — 지 영 달

오전 10시 30분

"하늘에서 온 천사 오랜 침묵 깨고  
 저 은혜로운 말씀 하강하시었도다  
 쓸쓸한 구모라 산에 거룩한 기록 문혔다  
 쓸쓸한 구모라 산에 거룩한 기록 들렸다."

모토나이 봉한 것 오래 문혔다가  
 땀에서 말하라는 주의 명령 기다렸네  
 그리스도 다스림을 안내하러 다시 나왔네  
 그리스도 다스림을 알리러 다시 나왔네."

찬송가 45장 "하늘에서 온 천사"를 새로운 느낌으로 합창  
 하면서 개최한 특별 작담회는 한인삼 형제의 기도가 끝나자,



참석자의 소개가 있는 다음 한시간 반에 걸쳐 열렸다.

사회: 오늘 우리들은 한국 선교부의 역사적인 순간에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어판 물몬경이 드디어 나왔다는 사실을 섬도의 벗 독자에게 소개하며 물몬경이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여러분의 숨은 노고의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 보고자 이 좌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모임은 출판 기념행사가 아니고 단지 독자들이 궁금히 여길 물몬경이 나오기까지의 일들을 직접 취급해 오신 여러분들의 증언을 들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한양 제본소의 책사장님과 보진제인쇄소에서 오신 황선생님에게 여쭙어 보겠는데요, 물몬경을 인쇄하시고 제본하시기 전에 물몬경이나 물몬에 관하여 말씀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책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책: 별로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물몬 교회가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황: 우리가 물몬경을 인쇄하게 되어 비로소 알게 되었고 마침 우리 회사에 직원 한분이 이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그분한테 대략 들어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조라든지 교회 장소를 알았습니다.

사회: 저희 교회에 다니신다는 직원은 누구신지요?

황: 험 대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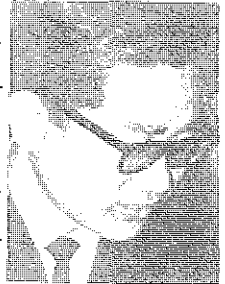
사회: 말씀을 듣고 보니 결국 물몬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물몬경이란 어떤 책인지는 잘 모르셨군요. 그럼 먼저 선교부장님에게 물몬경의 기원과 중요성을 여쭙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장: 무엇보다도 이 책은 조금전에 우리가 노래를 부른 것  
에서 읽은 것처럼,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이 세상 밖에서  
온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유일한 책입니다. 이런 말  
씀은 처음 듣는 분들에게 매우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  
다, 만약 이 물론경에 하나님에 관한 것과 인간에게 유  
익할 기사가 들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라는 사실일 것입니  
다. 이야기를 하자면 한이 없겠지만, 왜 이 책이 중요  
한가 요셉 스미스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전해드리  
겠습니다. 1828년 4월 28일에 요셉 스미스는 교회의  
최고 관리 역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물론경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책이다"라고 하였고 여기서 말하  
는 물론경은 영어판을 뜻하며 당시의 영어판은 우림과  
돔뎀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 번역되었기때  
문에 정확하게 번역되었고, 이번에 나온 한국어판 물론  
경의 번역 정확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내  
용을 습득하므로써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 가  
가이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성경은 오  
래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것을 전해 준다고  
합니다만, 사실삼 성경은 여러시대를 통한 여러 사람의  
수집과 기원이 여러곳에 있는 것을 통합한 것임에 반하  
여, 물론경은 지극히 영감에 찬 한 사람의 예언자가 번  
역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세상  
의 많은 인간 가족중에서 한국어로 이 책이 출판된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기쁘게 여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토나이 천사와 그 밖의 다른 천사들이 이 일을 기뻐하리라고 봅니다. 길게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희: 물론점의 기원과 중요성을 이제 알았고, 염어로 제일 먼저 번역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썬션스 형제님과 팔머 자매님에게 시간을 드려서 처음 물론점을 읽었을 때의 소감을 들어 보겠습니다.



썬션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특이한 예는 이것이 주토 그리스도 이전에 지상에 살았던 많은 민족의 이야기로서 당시의 생활 상황이 즉 그들이 받은 경고나 교훈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리 만큼, 같은 상황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니카이가 가졌던 고민이나 니카이 백성들의 투쟁, 혹은 레이맨인과의 전쟁, 이러한 것들은 차원을 달리해서 오늘날도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재림 이전의 말일에 살고 있고 임박한 때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에게도 이 책에서 주는 경고와 교훈과 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팔머자매: 제가 이 책을 읽은 것은 매우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이 책에 담긴 메시지가나 내용은 완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성년이 되어 읽으면서 느낀 점은 이것은 정말로 창조주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저기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의 아들과, 지구의 창조와 창조주와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번역해 주신 요셉 스미스는 물론 박해가 심하던 당시에 인쇄를 가능케 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념을 갖습니다. 아울러 이곳에 나와 주신 인쇄소와 제본소의 대표되시는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이 인쇄되고 제본되지만 사람들의 도덕적인 면을 부패시키고 생활 상태를 저하시키는 것들이 많은데 비하여 이 책은 세기를 두고 읽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고무적인 팻새이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엔 사전, 자서전, 백과사전이 많지만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이곳에 있으며 또 어디로 갈 것인지 제시해 주는 이와 같은 진리의 책은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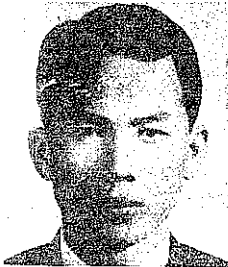


사회: 경전과 진리에 관한 이야기라 분위기가 엄숙하게 되었읍니다만 여러분 앞에 놓인 다과를 들으시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소음) 물론경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 참으로 기쁩니다. 그래서 ... (최천웅 씨가 개입)

최: 말씀중에 제가 말씀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가 일요일이 되어서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크를 오늘 아침에 뿌려서 아직 마르지 않았읍니다. 임크가 여러분 손에 묻어나는 것을 보니 송구스러워서 못견디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사회: 임크가 묻어나는 값나온 물몬경을 손에 들고 켜 보면서 좌담회를 하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그럼 그동안 간절히 기다리며 물몬경이 나오기를 고대하시던 선교사님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천남서장토님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천장토: 얼마전에 한국어로 물몬경을 감명깊게 읽어본 일이 있어서 켜 고대하였습니다만 이제 한국어로 나왔으므로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몬의 대표적 인 경전이 물몬경인데 우리 맘토된 물몬경을 구도자들에게 소개할 수 없던 유감을 이제 해소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회: 지금 정대판 형제님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던 이제 물몬경이 나오기까지의 숨은 이야기들을 실무자들에게서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오셔서 숨도 채 못돌리셨겠습니까만 오래전에 번역에 손 대셨던 정대판 형제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 그러니까 물몬경 번역에 처음 착수한 것은 언제 즈음입니까?

정형제: 예 - 1957년 봄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호직 박사님이 제일 먼저 착수하셨습니다. 그후 바쁘셔서 손 떴었고 58년에 잠세천 형제가 계속했다고 기억됩니다. 그 다음엔 홍병식 형제가 번역을 해서 5교까지 교점을 보았는데 중단되었고 그 후에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번역할 때는 지방부장으



토 있을 때라 일이 겹치고 전화가 자주 와서 번역에 지  
침이 많았기 때문에 부산으로 가서 번역했습니다.

사회: 한인삼 형제님은 부산 동구지부에 가서 번역을 하실  
때 별칭 "새잠"이라고 한 이층 골방에 갇혀서 번역을 하  
셨다는데 그 때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실까요?

한형제: 글세요. 이상스럽게도 물론경을 가지고 일했던 사  
람들이 무지 무지하게 시험같은 것을 담했던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책보다 이상스럽게도 무척 골치가 아팠어  
요. 그래서 내가 안경을 공안과에 가서 맞춰 쓰게 되  
었습니다. (일동 웃음)

정형제: 하하하 저도 이 안경이 그 때 만든 것입니다. (폭  
소)

한형제: 나중에 알고보니 정형제도 안경을 쓰  
게 되었던군요. 이 책이 그렇게 무척...  
밤해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라 그런것 같았습니다. 손조톱게  
돌아가든 일이 이 책의 번역을 맡고 나서  
전부 멈추어지는 그런것을 느꼈어요. 아뭏든 말할 수  
없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사회: 것처럼 어렵게 번역된 원고가 이제 탐고된 후 타이프  
로 정리되었는데 정신자 자매님이 그 때 타이프를 하셨  
지요?

정자매: 네.

사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요?

정자매: 글세요, 확실한 남자는 모트겠는데요, 몇달걸렸어요.



사회: 그 원고를 찍으시면서 마음속에 느껴졌던 것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정자매: 제가 이것을 타이프할 때는 교회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었을 때라 교리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지 못해서, 제가 두엇보다도 기뻐던 것은 물론경을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었어요. .... 찍는 동안에 ... 어느것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미쓰가 없이 잘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문장을 읽는데 도취되 몇구절씩 빼놓고 찍은 때도 있었어요. (일등 웃음) 그래서 다시 찍은 일도 기억하는데요, 것처럼 물론경은 감동적이었어요.



사회: 그 다음에 그 원고가 삼학 인쇄소로 넘어가서 조판이 되어 필림에 담겨졌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지요.

한형제: 글세요, 번역을 끝낸 것이 1965년 8월이었고, 9월부터 66년까지는 타이프 된 원고를 교정했기 때문에 인쇄소에서 기다린 셈이지요.

사회: 참 그렇지요. 그 때 박기옥 자매님이 일부 교정을 하셨고 조판된 후 사진 찍기 전에 몇차례 교정을 또 보았지요. 저도 한번 읽어 보았읍니다만 천나서 장도님이 최종적으로 읽어 보셨지요?

천장도: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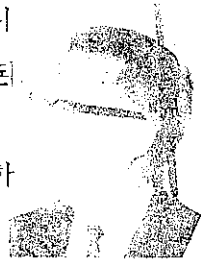
사회: 그 때의 소감을 좀 ....

천장도: 완전 이해를 못하면서 영어로 읽었을 때 보보다도 체계적으로 읽으니깐 정자매가 말씀하신대로 도취되는 기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더구나 교정이라고 생각하고 세심히 보자니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서 돌문경 이야기가 나오면 아주 기뻐서 한없이 이야기 하고 싶은 기분입니다.

사회: 오늘 책선생님께서서는 제본이 완성된 돌문경을 몇 권가지고 오셨는데 이 책의 제본을 맡으시면서 느끼신 짐과 경전이라는 데서 받으신 인상 같은 것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책선생: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저는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괄머 박사님을 알게 된 것은 다른 책이 동기가 되었는데 한국에서 과연 제본이 가능한지 걱정을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일본에 다녀온 후 느낀바가 있어 좋은 책을 만들어 보아야겠다는 구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실점으로는 고급책을 만들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던 차 이번에 부장님이 좋은 책을 만들어 보자 하신 것이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고 마음껏 만들어 보았고 그것이 인정되어 또 돌문경을 재게 맡겨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여러분 말씀 감명깊게 들었는데 이 책은 다른 책과 달라 내용이 특이하고 경전이다 하는 점을 알아서, 결코 자랑스러운 것은 못됩니다만 제 단엔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완성된 몇 권을 보았는데 선교부장님의 소감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팻머부장: 성도의 벗 3월호 권두언에 있듯이

33개국어로 물론점이 번역되었는데 흔히 말하는 보급판은 값이 싸고 제본이 그리 좋지는 않은데 한국어 판은 세계 어느 나라 것보다도 훌륭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삼화에서 친절하게 일해 주셨지만 인쇄 과정에서 보진제로 넘어갔고 보진제에서는 한장 한장 성의껏 인쇄해 주셨는데 진실로 감사하며, 한 협제가 성도의 벗에 기고하고 있는 "물문점 소고"에 모든 것이 기사화 될 줄 압니다. 만약 보진제에서 인쇄되지 못하였다면 그대로 중단 될런지도 도를 일인데 인쇄를 훌륭하게 끝내 주신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 물문점을 열면 인쇄된 제2면에 "물문점", "물문이 손수 니파이판에서 발췌하여 기록한 것"이라는 표제하에 인쇄된 것이 있는데 이것에 관하여 선교부장님의 말씀을 더 들어 보겠습니다.

팻머부장: 물문점 본문의 전체 기록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 표제하에 쓰인 기록은 이 지상에 살았던 근대 민족이나 어떤 민족의 언어도 아닌 언어로 모토나이가 기록한 것이었으며 물문점 금관의 왼쪽 맨 끝에 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의 일부였으므로 여러분에게 독특한 흥미를 줄 것 같습니다. 물문점이 처음 영어로 출판된 것은 1830년이고 요셉 스미스가 물문점 금관에서 영감에 의하여 번역할 때 쓰여진 시간은 3개월 미만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근대 백성에게 구원과 복음의 지

식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고대 남미대륙에 살았던 백성들의 문화와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심서어면서도 건축, 문화, 지리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역사를 전해줍니다. 그러나 물론경이 처음 염어로 나왔을 때 거기엔 착오가 하나도 없었으며 따라서 교정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잠과 절이 들어간 것은 1879년 올슨 프레스라는 사도에 의해서 되었고 한 페이지를 둘로 나누어 인쇄하게 된 것은 1920년이었습니다.

사회: 그럼 다시 인쇄 이야기로 되돌아 갑니다만 보진제에서 오신 황선생님의 뒷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황오섭: 네, 삼학에서 먼저 인쇄를 하다가 그곳에서 불가능하여 우리에게로 넘겨지게 되었는데 이 일이 맡겨지기 전에 얇은 종이 양면인쇄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업상 인쇄 비밀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만 저희는 인쇄과정에서 더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답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착수하게 되었는데 이 책이 경전이라는 점과 이제 처음 나오는 책이라는 점에서 신중히 잡하기로 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다짐하였습니다. 물론 인쇄 속도는 평상보다 20% 늦추어서 찍었습니다.



사회: 보진제는 특히 성경을 많이 찍어 오셨다고 들었는데 물론경을 인쇄하시면서 처음 보는 경전을 취급하는데서 달리 느껴지신 점이 있으면 말씀들려 주실까요?

황오섭: 물론 교인은 아닙니다만 종교적인 느낌을 갖게 되었고 인쇄 도중에 찍혀나온 종이를 들고 부분적으로 한구절 한구절 읽어볼 때 감동되는 바가 컸고 우리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업상의 수익을 위해서라면 일단 "오케이"된 것이니까 그대로 찍어주면 고만이지만 눈에 띄는 미쓰를 간과할 수는 없어서 발견되는대로 교정했고 일을 완전히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인쇄 도중에 시간이 걸렸던 것은 종이 보관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많이 구겨져 있었으므로 다리미질을 하면서 인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섭적이 아니라 솔직한 말씀입니다.

사회: 네, 저도 몇번 보집제 인쇄소에 가보았는데 직원들이 모두 보기 드문 성의와 친절로 일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잠간 최선생님에게 돌문경을 읽게 될 독자에게 바라시는 바를 여쭙어 볼까요?

최천웅: 독자에게 바라다기 보다는 저의 사업신조입니다만 책의 체계를 잘하고 재본을 훌륭히하여 여러분의 애호를 받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끝으로 돌문경을 읽을 때 감명깊었던 구절이나 성도의 벗 독자에게 권하고 싶은 구절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곰짜자 여... 기쁨을 기록해 주신 새들 장로님.

새들장로: 니파이 1서 3장 7절입니다.

사회: 사진을 찍노라고 수고하신 확이토 장로님.

확이트 장토: 엘마서 34장입니다.

사회: 다음 왼쪽으로 가면서 차례로 말씀해 주십시오.  
십시요.

정형제: 니파이 3서

천나서 장토: 레이맨인들이 개종후 전쟁터에  
서 무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 신앙.

정신자: 모사이야왕의 아들과 엘마의 개종동기.

한인상: 쇠막대기의 비유.

썬썬스형제: 엘마서 48장 12절-13절을 군인  
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팔머자매: 니파이 1서 1장 1절, 가정교육을  
훌륭히 해야 할 어머니로서.

팔머부장: 니파이 2서 2장 25절.

사회: 그 밖에 특별히 독자들을 위해 선교부장님께서 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팔머부장: 글세요, 없습니다. 이미 물돈경 첫 페이지에도  
토나이의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니다.

사회: 바쁘신데 이처럼 오랜시간을 내어 주시고 성도의 벗  
독자들을 위해 귀중한 말씀을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숨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아직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실줄 믿습니다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천나서 장토님의 기도로 이모임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록 - 녹음기 사용.)





물문경  
小考

韓仁相

원문 번역을 끝내고 해병대 재훈련에 소집되어 포함으로 내려간 후 삼경을 2일 앞두고 잠모 퇴실분의 별세의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전호에서 기술한바 있다. 그것이 사탄이 시도한 책후의 저지는 아니었으되 실토 무서운 일격이었다.

재훈련의 책종 과정이었던 사격훈련에 임하여 엄삼 독포물토 실탄을 날려 보내면서도 그 때 나는, 아니 나의 조준하는 눈은 거칠게 응고된 나의 심장을 조준하고 있었었다. 이미 술한 어려움을 이겨 왔대도 만일 그 때 마침내 험기를 들었더면 역시 오늘의 완성은 또 지연되었을 것이다.

삼경하여 다시 물문경 교정에 손을 댈 때 나는 거듭난 사람이었다. 그게 1965년 9월 말.

타자된 원고에서 오자와 탈자를 교정하고 맞춤법, 띄어쓰기를 손질할 때 비로서 교회 지도자들은 각주와 인덱스 부분의 번역정리를 명했다. 거기서 다시 문장 하나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야 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현재 이미 출판된 물문경 원문삼

의 각주 부호 표시는 일견하여 지극히 평범하고 간단하나 그것 하나 하나가 땀 덩어리, 그리고 핏덩어리.

그리하여 두려 3-4년을 기다리고 있던 삼화 출판사는 조판과정으로 두프로그램을 몰아갔고 선교부 번역실 전원은 직접 돌본점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까지 온통 이 역사적인 돌본점 인쇄출판의 무드로 긴장되어 분주했다. 조판된 내용이 교정을 거듭해 갔고 그것이 1년여를 소비한 것으로 보아 돌본점 출판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국 지방부에는 돌본점 출판 예정일이 발표되었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오던 성도중에는 아예 이를 믿으려 하지 않는 축들도 있었다. 연기의 연기를 거듭하다가 처음으로 거의 확실하게 예정했던 날자는 1966년 11월 말이었다. 일부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임기를 완료하고 귀국하기 전에 작겠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만일 돌본점이 계획대로 출판되기만 하면 훌륭한 성탄 선물이 될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그 예정일은 그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다시 3개월 간의 작업이 여러 각도에서 진전 되었고 그러는 중 이 출판의 완성을 앞두고 비로서 번역의 정확도 형태의 성격등을 따져 보겠다는 사람들이 몇몇 앞으로 내달랐고 그들이 불성실한 자세로 간섭(?)하려 했을 때 나는 마음을 삼해야 했다.

물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겠다던지 나를 좀 알아달라던지 하는 식의 요구를 갖는 것은 아니다. 아니 좀더 명백히 말하자면 충분히 작업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칭찬 같은 것은 받고 싶지 않다. 은밀한 중에 삼 주시는

나의 하늘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을 뿐인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친구가 있어 이야기 하지 않는 중애라도 그 접실했던 것들을 나누며 침찬이 아닌 깊은 이해의 이야기를 나눌 수만 있다면 나는 즐겁겠지.

드디어 전문가 전사되어 최종 검토가 끝났을 때 어쩐지 다시 번역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를 똑바로 느끼게 하면서 나를 흔들여 놓았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성신의 은사로 정확하게 번역했으나 나는, 나는 ??? 꼭 어디가 어쩔다고 나는 다시 지적할 수 없다. 그러나 나의 그 번역이 완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해서 이 사실이 나의 불성실을 뜻하지는 않는다. 비록 내가 온전한 성신의 은사를 입지 못하였으되 적어도 거도의 자세로 입했고 많은 날의 금식과 그밖에도 또 많은 것들을 지볼해야 했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토록 두서운 시련의 어느 끝날 물론경의 참됨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이 요구될지라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때의 그 태도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어서 많은 경우에서 그랬듯이 생명만한 댓가를 간증의 값으로 구한다면 그걸 지볼할 작정으로 있다.

우리 3년여를 삼환 참고에 보관했다가 작년(1966년) 8월 내외 참고 주식회사로 옮긴 종이를 찾아야 했다. 그런데 아불사, 당시 선교부 재점서기였던 리브잠토가 그 보관관계 서류를 잃은게 아닌가! 등록된 도장이 어떤 것이 없는지를 알지 못하여 집 땀을 뻘뻘 흘리고 그 하찮은 종이 보관문제에 까지 신경을 써야 했다. 물론경 5,000부 인쇄에 140엽의 종이가 필

요하대서 그걸 결국 천신 만고 끝에 찾아다가 삼화에 넘겼다.

1967년 2월. 삼화에서 전화가 왔다. 물론경의 첫 페이지가 인쇄되었으니 나와서 보아 달라는 것이었다. 선교부장 내외를 필두로 선교사 및 번역실 요원들이 일각을 지체하지 않고 삼화로 달려가 인쇄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론경 페이지를 움켜 잡았다. 성급한 성도의 벗 기자는 얼터리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다음날 삼화는 다시 선교본부로 전락을 걸어 자기들은 도저히 그 종이로 인쇄하지 못하겠으니 미안하지만 응급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약 4년을 보관해 두었던 물론경 용지 인디아지에 이상이 생겨 삼화의 인쇄기로는 도저히 인쇄 불가능이라는 것이었다. 사태는 지극히 심각한 면으로 발전해 갔다. 한국에서의 인디아지 구입도 문제가 되었지만 다시 140원을 살만한 예산이 용이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본부에 연락을 하면 결국 오기야 오겠지만 창고에 우리 종이를 쌓아 두고도 인쇄하지 못한다는데 아이러니가 있었다. 그리하여 율라드 장토와 할 장토에게 주어 대관장님께 전달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우리는 일면으로 종이 구입을 서두르고 한편으로는 그 종이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는 인쇄소를 찾다가 보진제 인쇄소와 접촉이 되었던 거다. 보진제는 삼화에 비하면 시설이 보잘것 없었으나 인디아지 인쇄에는 권위라는 정평이 붙어 있었고 사장님이 종이를 한번 만져보더니 바로 인쇄가 가능하다고 했다. 함께 이곳을 찾아갔던 선교부장님, 이를 믿지 않으시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을 밝히며 주변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각설하고 거기서 인쇄는 진행되었고 착수 2주역만에 인쇄를 끝냈다. 생각컨대 여기 이 과정이 또 하나의 고비였다. 정말 인디아지를 따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이었다면 일은 기약도 없이 지연되고 말았을 거다. 이 지면을 빌어 나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일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신 교회 내외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기실 출판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나는 속으로 하나님께서 혹 이 번역을 함당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일가고 마음먹어 보았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그렇게 마음먹자니 나의 발버둥이 너무 헛된 것으로 생각되어 실패했다. 결국 그것이 아버지께 함당하여 받아드려지던지 그렇지 못하던지 간에 나는 물론결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있었다.

이번호에는 번역과 직접 관련된 이야기를 적어 보겠노라고 지난달 성도의 벗을 통하여 약속해 놓고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 하고 말았다. 제한된 지면에 긴 역사를 간추려 넣자니 그렇게 되는 모양이다. 일일이 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나는 정말 귀한 것을 물론결 번역과정에서 경험했다.

신구 선교부장 교체가 있고나서 얼마 안되어 선교부세마나를 제주도에서 개최한 일이 있었다. 그때 나는 번역사의 자격으로 거기 참석했다가 아주 영광스런 꿈을 꾸었다. 그저 영광스럽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꿈을 깨고나서 나는 내가 하고 있던 일이 가치있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후로도 여러번 꿈을 통하여 물론경의 내용이 내게 보여진 일이 있었는데 이상스럽게도 그 다음날 번역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아뭏튼 나는 그때 물론경과 가장 가까운거리에서 살았다. 한번은 꿈에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그 때는 선교사였으니까 정말 아들을 낳았다면 파멸감이겠지) 한번이 내게로 와서 그 아들의 이름을 니파이라고 지으라고 명한 때가 있었다. 이밖에도 재미있는 꿈이 많았지만 꿈 얘기는 이만하고, 오역을 해 놓고 그것을 점점하게된 몇개의 경우를 적어 보겠다. 힐라덱서들 번역할 때의 일이다. 처음 부분에 한절 반을 빼놓고 번역하여 거의 두장을 넘어가 놓고나서 원일인지 앞부분의 번역으로 마음이 쓸린채 더 번역해 갈 수가 없었다. 그런 일은 이미 여러번 경험했던지라 벌써 번역을 계속하려 하지 않았다. 언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나는 걸상에서 내려앉아 기도하기도 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번역의 처음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고 거기서 한절 반의 탈락된 부분을 발견해 내고 말았다. 그런 일이 되풀이 될 때마다 나는 더욱 용기를 내곤 했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자극으로 마음이 혼란해졌을 때는 나는 번역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리하여 동반자도 없이 수정동 동구지부 이층 굴방에 갇혀 있던 나는 이층을 거닐면서 휘파람을 불거나 줄이 두개 없는, 거인 선교사 림기감토가 물려준 그 낡은 기타를 유크레리 코드에 맞춰 뜯으며 노래를 했다. 그런 시간에 나는 무거운 짐에서 잠시 벗어나 선교사라기 보다는 벌거벗은 인간으로의 향수를 달렸고 고향생각이랑 애인 생각 그리고 즐거웠던 날들과 환

구들을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계속되는 것은 아니었다. 선교사의 부름을 받은 이래로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영어사전 한번 제대로 열어보지 못하던 그 의무감이 선교사의 임무를 끝내는 날 까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던지- 나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집안 걱정으로 마음이 여지러 쉬져서 한절, 한자도 번역에 손을 대지 못한채 하루 종일 죄 없는 쉬고지만 찢어 버렸던 날도 있었다. 그런 날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의 작업량을 채우려고 밤 2시가 넘도록 번역을 하기도 하기도 했었다. 당시 부산 동구 지부에는 스포빌잠토가 지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넬슨 잠토가 그의 동반자(바토 그전에 켄슨잠토가 지부장이었음)로 일했으며 팀기잠토와 허버잠토가 일하고 있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나를 도와 때로는 금식도 함께 했고 기도도 함께 해주었으며 후 번역된 부분을 읽어 주기라도 하면 뉘듯이 기뻐했던 표정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다.

나는 이 번역을 통하여 여러가지를 배웠지만 그중 가장 절실하게 느낀 점으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는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이 합당한 절차를 좇아 마렵되고 나서 이제 우리는 번역된 우리말의 돌문경을 우리 손에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구태여 돌문경을 앞에 놓고 번역의 과정이라던지 그 수고를 생각하라고는 권고하고 싶지 않다. 그 보다는 몇 배 중요한 점으로 돌문경이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

거가 있다. 번역된 이 책을 읽고 거기 담긴 메시지를 받아 드릴 때 비로서 이 책은 의미를 갖게 되고 또 그것이 물론점 출판을 위해 노력한 많은 사람에게 대한 합당한 인사가 되리라 고 믿어 마지 않는다.

내가 어려움에 시달려 거의 기진했을 때 자기도 함께 물론점 번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노라는 성도들의 편지를 받으면 다시 몸매를 가다듬곤 했다. 이제 이 시간에 그 형제 자매들에게 나는 그때 그 편지를 적던 바로 그 심정으로 물론점을 읽고 공부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물론점 출판과 직접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회원들 간에는 이미 물론점 성도가 제대로 성경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거의 지배적으로 나누어 지고 있다. 이 문제들 놓고 생각해 볼 것 하나. 수년동안 우리말로 출판되어 우리 손에 있었던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성도라고 하면 과연 물론점이 우리말로 출판되었을 때 이를 열심히 공부하겠느냐? 하는 점이다. 꼭 고집어 낼 심사는 아니지만 사실 따져 보면 그밖의 외국 서적에는 손을 대고 그걸 읽었노라고 호언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 어려움을 하는 동안 물론점을 읽고 간증을 얻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일찌기 보지 못한 실정이다. 요컨대 나는 요구를 가진 사람에게는 물론점이 혹 언어이외의 언어로 되었대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요, 전혀 요구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 되었어도 그리 의미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싶다.

물론점 번역과 교정과 출판까지의 과정을 뒤 쫓으면서 불안하기만 했던 심정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바뀌고 있다.



흡사 그것은 도마위로 옮겨가는 산 생선의 마음이랄가? 그러나 최선의 노력으로 번역했다는 자세로 번역에 대한 어떠한 비판과 증고라도 달게 받을 각오는 되어 있다. 끝으로 이 출판의 완성을 함께 기도한 작은 나의 아내에게 감사하며  
.....

정미년 삼월 스무 엿새.

# 眞實한聖徒가 되자

車鍾煥兄弟

말일에 회복된 참된 교회에 속한 나는 무한히 행복하다. 행복에 젖어 많은 일을 해야겠다. 그러나 부족함이 많다.

나의 부족한 많은 것중 지면 관계도 있으니 진실성에 관해서만 생각하련다.

나는 왜 진실하지 못한지 알수 없다. 그러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고져 노력하련다. 정말 진실한 인생이 되여야겠다. 참되고 신해야겠다. 주님 말씀과 같이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거짓말은 눈뿜치와 같이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듯 할수록 늘어난다.

허위, 기만, 가면등은 오직 진실 앞에서는 함복하는 것이며 교만과 허영은 진실토서만 파멸시킬 수 있는 것을 알

고 있다. 오늘의 이 험악한 세대는 진실을 멀리하고 기만과 허영을 찬양하고 있으나 최후의 승리는 진실이며 최후의 '월계관'은 진실만이 차지할 것이다. 거짓은 사실앞에 두렵하게 될 것이다. 진실만이 최후 정책이다.

진실이란 쓴 약과 같기에 인간은 이것을 먹고자 결심하기보다는 병을 앓으면서 누워있기를 결심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고 연약하고 불안정한 존재인 것이다.

진실을 떠난 정의가 없고 진실을 거부하고서는 성공하지 못하며 진실은 가장 강한 무기이기에 정복하지 못한 세계가 없다.

진실한 말, 진실한 행위, 진실한 마음 이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바라는 소원이요, 꽃이요, 희망이요, 향기인 것이다. 진실한 사람, 진실한 모임, 진실한 단체, 진실한 일꾼들이 이 강토의 주인이요, 지도자가 되는 것이며 꼭 띄어야 하겠다.

우리 각자가 얼마나 진실한지 고요히 마음의 거울 속에 비춰 보자. 심장 아니 양심의 고동 소리를 들어보자. 하루에 몇번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춰보고 생각하고 반성해 보자. 금강석도 닦지 않으면 광채가 나지 않는 것과 같이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높은 지식을 쌓고 세련된 양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자주 마음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 씻어 내고 닦아내지 않으면 빛나는 성품을 건설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과 같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해야 될 줄 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자.

주님 앞으로 가기 위해 진심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무엇보다 기쁘게 받아야겠다. 아니면 비록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일을 못합지라도 거짓말만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커다란 선을 생각하는법"이라고 공자님은 말씀하였다고 한다.

남의 앞에서 이야기 할 때 과장된 자기 선전을 하여 타인의 괘고 고운 심리를 뒤집히지 말아야겠다. 칩묵은 금이요 용변은 은이라는 말이 있다. 금은 은보다 값이 있음을 자타가 공인 할진데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하여 과장된 자기 선전은 금해야겠다. 그릇이 크면 볼수록 스스로 빛나며 베푸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법이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말씀이 성경에도 있다. 안하무인 독존격으로 나만 제일이요, 나만 대가요, 나만 하나님의 참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척하지 말아야겠다.

덕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덕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유덕한 것이다. 높은 덕을 가진 사람은 큰 자신을 갖는 일이 없고 또 자기를 크게 보이려 하지 않는다. 덕이 낮은 사람은 항상 자신 만만한척 하며 자기를 크게 보이려 한다. 뛰어난게 선량한 사람은 진실로 착하고 참된 행동을 하지만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확신을 하며 그것을 남에게 선전 할려고 애를 쓴다. 정의감이 강한 사람은 실제로 행동을 하지만 남에게 자랑할려고 애쓰지 않으며 정의심이 낮은 사람은 조그만 일을 해도 곧 그것을 자랑할려고 애를 쓴다고 중국의 노자는 말씀하셨다. 아첨하지 않는 사람, 과장된 자기 선전을 하지 않

는 사람, 남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진실되고 선하고 착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해야겠다. 사실대로 보이며 살아야겠다.

진실한 행동, 진실한 말, 진실한 마음의 표현은 단순 명료한 것이지만 허위, 가면, 부정은 언제나 복잡다단하고 험용이 많은 것이다. 내용이 없는 진실성이 없는 외모만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최후의 심판은 외도만 보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거 일동이 기록되는 생명록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타인의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행위의 업적을 많이 보고 배워서 행해야겠다.

양심적인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가면 없는 사람,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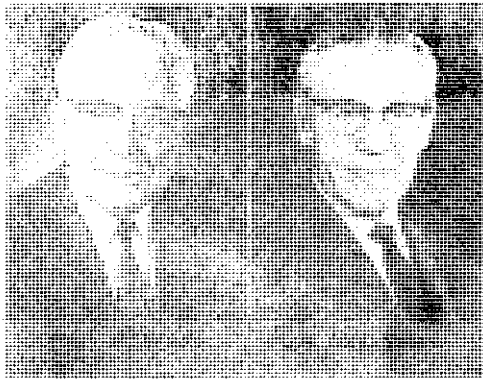
우리는 주체성을 확립하여 우리의 소신대로 주님을 위하여 하늘에 속한 일을 해야겠다.

모든것에 감사하고 언행이 일치되는 생활을 해야겠다.

진실한 생활토 시종합력면 그토 인해 일시 많은 적을 얻을지라도 그들 자체도 오래지 않아 굴복할 것이다.

존경하는 회원들의 행운을 빌며 ....

(필자 한국지방부 지방부장)



# 트 맥 싱식

협재 교회의 대관장 회의에는 데이브 오. 맥케이 예언자들 비롯하여 그분을 보좌하는 네분이 계신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분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관장, 데이브 오. 맥케이

"회원은 모두 선교사"라는 주의를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지시키드로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웠고, 스위스, 토스엔젤스, 뉴질랜드, 런던, 그리고 오스트랄랜드 신전을 창립하였으며 최근에는 두 사람의 보좌를 증원하여 네분의 보좌와 함께 일하고 계시며, "가정의 복음 교육"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시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제1보좌, 휴 비. 부라운

1883년 10월 24일 쉴트레이크시에서 출생, 1953년 10월 12사도 보조로 부름받음. 1958년 4월 12사도로 부름받음. 1961년 6월, 대관장회의 보좌로 안수됨.

제2보좌, 앤 엘던 테너

1893년 5월 9일생. 1960년 12사도보조로 임명, 1962년 10월에 12사도로 지지. 1963년 10월에 데이브 오. 맥케이 대관장의 제2보좌로 선택됨.

보좌, 죠셉 필딩 스미스

1876년 7월 19일 출생. 6대 대관장이셨던 죠셉 에프. 스미스의 아들. 12사도회 회장직과 대관장 보좌를 겸함. 1921년부터 교회 역사가이며 샬트레이크 신전 총 관리자였고, 유타의 계보협회 회장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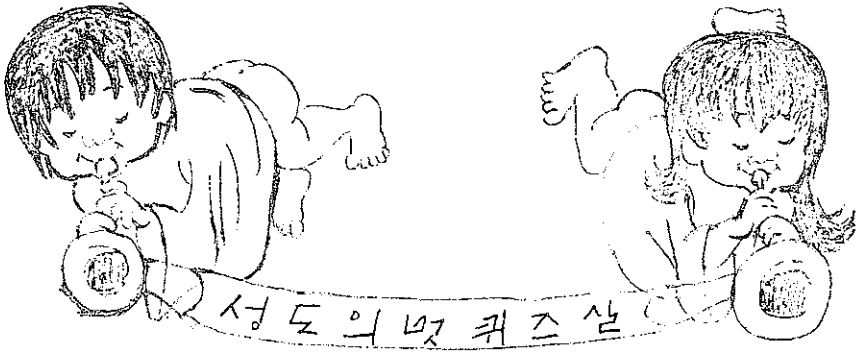
보좌, 돌프 비. 아이삭슨

1898년 9월 6일 탄생. 학생 시절엔 운동 선수였음. 1961년 10월, 12사도 보조로 섬임. 1965년 10월 29일. 대관장회의 보좌로 부름 받음.

# 1967년도 아론신권 회복기념

대관장회에서는 1967년 5월 14일에 소신권 회복 기념행사를 갖도록 공식 승인했다. 한국 지방부에서는 아론신권 회복 기념행사의 하나로서 아래와 같이 각 지방 신권회 대항 배구 대회를 갖기로 했다.

일시	5월 13일	오후 3시
장소	서울지역	선교부 신실 배구장
	남부지역	부산 동구지부



\* 제 2회 성도의 벗 퀴즈 해답 발표는 성도의 벗 5월호에.  
4월 25일까지 계속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3 회 문제

1. 현재 12사도회에 계신 분으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과 가장 적으신 분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쓰라.
2. 물론경은 주전 몇년부터 주후 몇년 까지의 기록을 수록하고 있는가?

#### 응모 요령

1. 문제와 해답을 쓰고 주소 성명과 소속지부명을 명기할 것
2. 해답은 "성도의 벗" 편집실로 보내되 5월 25일 까지 보낼 것.

#### 시 상

1. 3회 계속 정해답자(성도의 벗 1년분)
2. 정해답자는 성도의 벗에 발표함.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역사 초창기에 성도들을 다음과같은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교성 88장 77절)

이 가르침의 목적은 가르침을 듣는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배우고 그의 진리를 받아 드린 다음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개종의 과정인 것이다.

사람이 "왕국의 교리"를 듣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도 없으며 구원받지 못한다.

주님의 교회의 목적은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며, 그 조직은 "성도들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데 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의 목적에 틀림없다.

만약 우리들이 이와같이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를 믿고 우리 반에 와서 주님께 관한 것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을 불시에 열 길로 데려가는 격이 된다.

"왕국의 교리"에서 이탈될 때 우리는 담장 인간들의 교리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인간이 만든 종교를 어떻게 정죄하실까!

말일성도들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첫 시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고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던 다음의 말씀을 잊지 않았을 것이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태 15장 8절)

신 예루살렘 성경은 "저들이 나에게 드리는 예배는 두의 한 것이며 저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인간의 법규에 불과 하나라"고 기록했으며,

스콘필드의 신약성경은 "저들이 인간의 감령을 교리로 가르칠 때에 나에게 드리는 예배는 쓸데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들이 구상해낸 종교적인 교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며 그런 교리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도 못한다. 그것은 혼란만을 조감시킬 뿐이다.

인간의 가르침을 더욱 좋아하여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는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찌라도 위에서 언급한 성귀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이다.

"왕국의 교리"에서 벗어난 채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크게 책임을 느껴야 할 일이다. 그것에 관하여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업자뱀들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학문의 자유"라는 것을 생각하여 어떤 교사들은 우리들의 반이 근본적인 교리가 도전을 받고 또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공칭 회와 같은 것으로 오인하여 정통실에서 어긋난 견해를 종종 소개하는 일이 있다.

우리들이 가트치는 반은 절대로 이런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반은 복음에 귀의 시키는 중재자이며 이 개종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므로써 실현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지적인 지도 방법이 교리의 모든 면에 도전적인 태세를 갖게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있는 말씀을 저하시킨다고 믿기 때문에 영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철학적 견해를 대신 가트치기도 한다.

주님께서 충분한 근거도 없는 "지식"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저명한 평론가, 철학자, 및 무신론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살아있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교회들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구세주께서는 한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관하여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태 18장 3절) 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어른이 된 다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 받으려 하지 않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결전과 하나님의 예언자들

에게 도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짓인지 혹은 유치한 짓인지 자  
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안에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지식안에 있는 것일까?

## 나의 교회생활 9년

최장순

내가 교회생활을 해온 것은 1967년 3월 8일토 밤 아홉들  
의 생일을 맞는 셈이다. 십년이면 감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  
다. 십년으로 접어드는 나의 교회생활에도 분명히 어떤 변  
화(발전이라고 말하고 싶다.)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이것들을 찾아보기 위하여 먼저 나의 어린 시절을 더듬어  
본다.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지도 않으며 기껏해야 일년  
에 두세번쯤 그분이 서울에 오시던지 우리가 휴가로 시골집  
을 방문할 때 비로서 서로 얼굴을 대할 수 있지만 내가 어렸  
을 때는 어머니 곁을 조금도 떠나지 못했고 어머니께서 어디  
를 가시려면, 아주 가까운 곳이라도, "야야! 나 어디 다녀  
올테니 그 때까지 잘 놀아라."는 말씀을 꼭 하셨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예고도 없이 어머니가 내 곁에 계시지 않을 때는  
나는 마구 울어댔고 그 누구도 달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나는 사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안채까지 들어오는 손님들

을 싫어했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들을 쳐다보지도 못했으며  
혹시 그들이 나에게 두어라고 말이라도 걸면 우는 도리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나의 별명은 "울새"였으며 둘째 아버지는  
예외없이 "울새"라는 이름으로 나를 부르시곤 하셨다는  
것이다. 특별히 내가 싫어한 것은 우리 의삼촌의 방문이었  
다. 그분이 오시면 틀림없이 나에게서는 없지 못할 어머니잖애  
서 웃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집을 떠날때까지  
는 어머니 방에 가볼 엄두도 못냈다. 또 그때의 내 사진  
은 모두 뒷모습의 것이거나 옆모습의 것밖에 없다. 창현으  
로 사진기의 렌스나 사진찍는 사람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쓰는 이유는 나의 전체인것만 같던 이 부끄  
러움증으로 인하여 어린애 노릇밖에 할 수 없었던 그때의 나  
와 지금의 나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  
이다. 여하튼 꽤 많은 번천과정을 밟아왔다고 말할 수 있으  
며 이것은 바로 교회 생활에서 받은 결과라고 감히 말하고 싶  
다.

대학 이학년 때 우연한 선교사의 방문을 받고 한달간의  
복음 공부 끝에 침례를 받았다. 그 당시 교회활동 중에서 나  
의 관심을 가장 크게 끈 것은 삼향회 활동이었다. 학교에서  
강의시간 중에도 삼향회 생각으로 가득했으며 삼향회의 재미  
있었던 오락 및 게임들을 생각하고 혼자 웃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생활이 지금껏 나를 붙잡아 왔고 그러한  
동안 삼향회 의의 여러 보조조직 활동들도 알게 되었으며 한  
때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학생들과 더불어 복음 공부를 하는  
것 만큼 흐뭇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 보기도 했다. 지금은 근

삼년간 상호부조회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상호부조회를 가르켜 여성들의 행복의 원천이라 말하곤 한다.

여자들의 생활 감정이 다 그런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마음의 평정과 격정은 스스로 다스리기 힘들다. 가장 즐겁고 자유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 가득차서, 진정 그런것을 순간적으로 맛보고 즐거워하나 다음 순간 높이 솟았던 기쁨의 궤도는 얼마나 깊은 골짜기에 까지 떨어지는지 모른다. 이런 때에 늘 마음의 지주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 주는 것은 상호부조회에서 가르쳐주는 여러가지 일들이었으며 이런 일들을 하면서 힘을 얻고 나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기도 한다. 작은 일들 때로는 힘에 겨운 일들을 통해서 나는 성장해 왔고, 아직도 대중 앞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두렵지 않다거나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나의 자세를 가누고 일들을 처리한다. 여하튼 교회는 나를 길러 주었으며 그 가르치는 것들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어 왔다.

둘째 나는 펍 게을러서 한집에 살던 내 또래의 형제나 사촌들이 이미 아침을 먹고 밖에 나가 뛰어들 때 겨우 잠자리에서 일어났으며 공부하기 보다는 해가 지도록 밖에서 놀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책보가 어디 있는지 몰라 도말아 꾸중을 맞았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어린 시절의 몇가지 결함들을 지적하고 교회생활 9년을 통하여 받은 결과 다시 말해서 현재의 내 상태를 들어 이 글을 끝맺어야 하겠지만 나의 현 상태가 이런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송구스럽기 때문에 내 생활의 지

침으로 삼고 싶으며 또 나에게 인삼적이었던 성구 몇 개를 소개하고 앞으로도 계속 어떤 변화를 겪고 싶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 4장 58절)는 말씀은 유치하기만 한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노력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만일 어느 사람이 근면하고 순종하므로써 다른 사람보다 한층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었으면 잠차 오는 세상에서 그 만큼의 이익을 얻으리라." (교성 130장 19절)

"질신토 내가 이르노니 무릇 인간은 훌륭한 대업에 힘써 종사하며 자신의 자유의사으로써 많은 일을 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교성 58장 27절)

"모든 승리와 영광은 너희 근면과 충실과 신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지느니라" (교성 103장 36절)

끝으로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고맙게 생각하며 오늘의 내가 내일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는지 가히 추측도 할 수 없지만 지난 9년간의 교회 생활이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들어 준 것과 비슷하게 계속 교회에서 가르치는대로 생활한다면 교회가 바라는 그 모습이 되리라고 믿는다.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주위에서 늘 격려해주는 교회의 지도자님들 및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성심으로 나를 도와주시려는 분들에게 직접 전할 수 없는 심심한 사의들이 지면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다.

# 난민 함 니리

## 새로운 형제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경험한 여러가지 두렵한 양상 중의 하나는 현대화를 위한 활발한 과정이다. 주위는 온통 개선된 생활을 약속하는 무서운 근면과 헌신의 표시로 가득차 있다. 현대 사회를 이룩하려는 이 위대한 노력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풍습의 조절이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본인이 여기에 "조절"이라는 어휘를 사용한 것은 전통적인 가족제도라는 감점이 일시에 두너지다던 그것 또한 비극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상의 변천은 속도가 완만하여서 변화에 무리를 가하지 말아야 겠다는 의도에서였다.) 다른 아세아 제국에 비하여 한국인이 복음을 눈에 띄는 정도로 용이하게 받아드린 사실은 좋은 현상이며 지성인이나 침착한 사람들은 실로 중요한 가족의 전통에 대한 집착에 꾸준히, 그러나 서서히,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혈통이나 선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이야말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떠날까 흥분한 기둥이 된다. 우리의 역언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자기 가정을 희생한 성공이라면 그것을 참다운 성공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 과연 이 "가족"이라는 말을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본인이 여기에 자기의 혈통을 본위로한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확대하여



보다 큰 가족의 개념을 받아드리자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즉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을 회원들 사이의 사랑, 존경,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나는 과거의 고루한 사람들이 이웃의 궁핍을 너무 외면하며 생활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한다.

전쟁이 안겨다 준 기아, 빈곤, 파괴 등은 생활을 비참하게 만들어 자기 직계 가족 이외에는 하등의 그런 의무를 느끼지 않게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특성과 또는 한국에의 교회 설립은 인간에 대한 동정심과 서로가 주고 받는 사람을 체험케 하는 매개의 역할을 하였다. 사람이 타인에 이하역 받아드려 지거나 또는 김정한 의에서 인정되거나 간에 사랑 그것에는 자신의 시간과 재산을 주는 비이기적임과 동시에 자비로운 행동이 따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적극적인 행위(그것으로 신앙을 더 돈독히 할 수 있는)가 가져오는 확고한 신념으로 헌신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영적인 혹은 도덕적인 힘을 제공하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어느 종교에서든지 그것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일 때는, 인생의 추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성장과 발전에는 아무런 힘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 한국에는 시간, 능력, 또는 금전 등—한국 전역에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력을 제공할 수 있는—을 가지고 있는 충실한 성도를 중심으로 견고한 기초 위에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시간과 능력은 극히 간단한 요소가 되는 개인의 노력과 열망을 갖출 때 비로서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제,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돌려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자비를 느끼도록 노력합시다. 신권 소유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각 회원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상호부조회는 교회 안의 모든 자매를 돌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근면한 정신을 고취시키고 자기를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는 가운데 자기가 상호부조회의 일원임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해주어야 한다. 지부나 지역의 지도자는 자기들이 맡은 직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구원의 고리를 심어주고 키워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본인은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일에 헌신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 수 있기를 염원하는 바이다.

한국인의 특집인 정력과 충성심은 우리가 광범위하게 이용하지 않으면 안될 선택된 요소들이다. 우리는 만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우리가 사는 현재나 장차 다칠 영원한 삶을 위하여 얻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 각자는 그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공헌해야 한다. 그리하면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필자: 한국 선교부장단 제1노조)

關心있다

여기에  
關心있다

하킨스씨와 『李舜臣』



壬辰倭亂과 韓日關係 연구  
5千年 歷史에 근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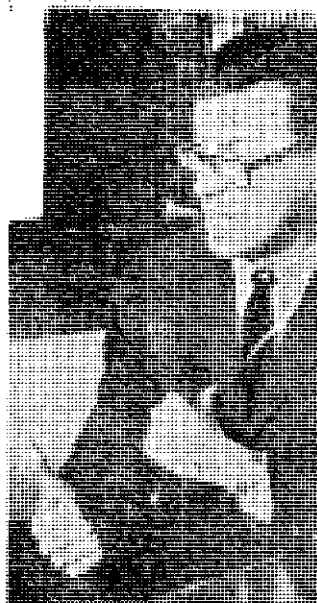
<물길의 승족만이 행복의 여진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하킨스」 씨>

『세계의 언어중에서 學問인 「메이비드」 버틀러가  
한국어처럼 尊待法이세 러」씨는내년봄 「하와이」 가  
말하게 發見되어 있는인 「대학 대학원의 發達」 韓

버틀러氏와 우리 말 尊待法

碩士論文資料준비에 바빠  
『世界에서 가장 세밀히 發達』

「하킨스」씨는 「『영  
국』가 「아메리카」  
발전하기도 전에 南



사기

그는 또 近代化  
과정은 1. 19세기 후반  
대로 2. 20세기 초반  
나 근대화의 초  
기의 3. 20세기 후반  
의 4. 21세기 초반  
의 5. 21세기 후반  
의 6. 22세기 초반  
의 7. 22세기 후반  
의 8. 23세기 초반  
의 9. 23세기 후반  
의 10. 24세기 초반  
의 11. 24세기 후반  
의 12. 25세기 초반  
의 13. 25세기 후반  
의 14. 26세기 초반  
의 15. 26세기 후반  
의 16. 27세기 초반  
의 17. 27세기 후반  
의 18. 28세기 초반  
의 19. 28세기 후반  
의 20. 29세기 초반  
의 21. 29세기 후반  
의 22. 30세기 초반  
의 23. 30세기 후반  
의 24. 31세기 초반  
의 25. 31세기 후반  
의 26. 32세기 초반  
의 27. 32세기 후반  
의 28. 33세기 초반  
의 29. 33세기 후반  
의 30. 34세기 초반  
의 31. 34세기 후반  
의 32. 35세기 초반  
의 33. 35세기 후반  
의 34. 36세기 초반  
의 35. 36세기 후반  
의 36. 37세기 초반  
의 37. 37세기 후반  
의 38. 38세기 초반  
의 39. 38세기 후반  
의 40. 39세기 초반  
의 41. 39세기 후반  
의 42. 40세기 초반  
의 43. 40세기 후반  
의 44. 41세기 초반  
의 45. 41세기 후반  
의 46. 42세기 초반  
의 47. 42세기 후반  
의 48. 43세기 초반  
의 49. 43세기 후반  
의 50. 44세기 초반  
의 51. 44세기 후반  
의 52. 45세기 초반  
의 53. 45세기 후반  
의 54. 46세기 초반  
의 55. 46세기 후반  
의 56. 47세기 초반  
의 57. 47세기 후반  
의 58. 48세기 초반  
의 59. 48세기 후반  
의 60. 49세기 초반  
의 61. 49세기 후반  
의 62. 50세기 초반  
의 63. 50세기 후반  
의 64. 51세기 초반  
의 65. 51세기 후반  
의 66. 52세기 초반  
의 67. 52세기 후반  
의 68. 53세기 초반  
의 69. 53세기 후반  
의 70. 54세기 초반  
의 71. 54세기 후반  
의 72. 55세기 초반  
의 73. 55세기 후반  
의 74. 56세기 초반  
의 75. 56세기 후반  
의 76. 57세기 초반  
의 77. 57세기 후반  
의 78. 58세기 초반  
의 79. 58세기 후반  
의 80. 59세기 초반  
의 81. 59세기 후반  
의 82. 60세기 초반  
의 83. 60세기 후반  
의 84. 61세기 초반  
의 85. 61세기 후반  
의 86. 62세기 초반  
의 87. 62세기 후반  
의 88. 63세기 초반  
의 89. 63세기 후반  
의 90. 64세기 초반  
의 91. 64세기 후반  
의 92. 65세기 초반  
의 93. 65세기 후반  
의 94. 66세기 초반  
의 95. 66세기 후반  
의 96. 67세기 초반  
의 97. 67세기 후반  
의 98. 68세기 초반  
의 99. 68세기 후반  
의 100. 69세기 초반  
의 101. 69세기 후반  
의 102. 70세기 초반  
의 103. 70세기 후반  
의 104. 71세기 초반  
의 105. 71세기 후반  
의 106. 72세기 초반  
의 107. 72세기 후반  
의 108. 73세기 초반  
의 109. 73세기 후반  
의 110. 74세기 초반  
의 111. 74세기 후반  
의 112. 75세기 초반  
의 113. 75세기 후반  
의 114. 76세기 초반  
의 115. 76세기 후반  
의 116. 77세기 초반  
의 117. 77세기 후반  
의 118. 78세기 초반  
의 119. 78세기 후반  
의 120. 79세기 초반  
의 121. 79세기 후반  
의 122. 80세기 초반  
의 123. 80세기 후반  
의 124. 81세기 초반  
의 125. 81세기 후반  
의 126. 82세기 초반  
의 127. 82세기 후반  
의 128. 83세기 초반  
의 129. 83세기 후반  
의 130. 84세기 초반  
의 131. 84세기 후반  
의 132. 85세기 초반  
의 133. 85세기 후반  
의 134. 86세기 초반  
의 135. 86세기 후반  
의 136. 87세기 초반  
의 137. 87세기 후반  
의 138. 88세기 초반  
의 139. 88세기 후반  
의 140. 89세기 초반  
의 141. 89세기 후반  
의 142. 90세기 초반  
의 143. 90세기 후반  
의 144. 91세기 초반  
의 145. 91세기 후반  
의 146. 92세기 초반  
의 147. 92세기 후반  
의 148. 93세기 초반  
의 149. 93세기 후반  
의 150. 94세기 초반  
의 151. 94세기 후반  
의 152. 95세기 초반  
의 153. 95세기 후반  
의 154. 96세기 초반  
의 155. 96세기 후반  
의 156. 97세기 초반  
의 157. 97세기 후반  
의 158. 98세기 초반  
의 159. 98세기 후반  
의 160. 99세기 초반  
의 161. 99세기 후반  
의 162. 100세기 초반  
의 163. 100세기 후반

모든은李舜臣씨의 「용  
수의 저바람속의」 용의  
기 시작했다. 美國語가  
「強弱의言語」 인 비 비  
韓國語는 「長短의言語」  
여서 「배우기」 아주 힘  
들다」고 고수를 비쳤  
다.

한국어에 있어서의 尊  
待法에 관한 研究」란  
碩士논문은 尊待法과  
동원사주 한다.  
美 「브리감」 연 「대학  
東洋學科를 나와 「용  
은 「선교사」 파견되었  
던 「버틀러」 씨는 自國  
語(美) 에서는 찾아볼  
수없는 여러 屬別의 敬  
稱을 가진 한국어의 尊

# 환영합니다! 이반스

매일 아침 주한 미군 방송을 들어보면(오전 9시 5분부터 9시 30분까지) 웅장한 테버내를 합창단과 함께 파이프 올갱 소리가 들리고 그 사이 사이에 이반스 사도님의 귀한 말씀이 울려 퍼진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신 이반스 사도님께서 지난 3월 25일에 한국을 방문하셨다. 물론 이번 방한이 교회가 주선한 여행이 아니었으나 국제 토타리 클럽 회장의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신 이반스 사도님께서는 안식일인 26일에 서울 동북지방을 방문하시고 서울지역의 성도들에게 전선을 통해서만 들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다.

기획은 두재환이라는 사도님의 복음 철학을 성도들에게 갈파하시면서 복음을 공부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허가되는 모든 기획을 잘 포착하여 선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부인이신 이반스 자매님을 동반하신 이반스 사도님께서서는 젊은이들을 두세케 할 건강을 지니셨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말일성도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 주셨다. 한국 방문 이후 50여개국의 방문을 더 해야 하는 여행일정을 펴시는 사도님의 표정을 밝기만 했다.

우리가 늘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느끼는 그러한 따뜻함과 고매함과 신성함을 예외없이 전해 주신 이반스 사도님 부처가 한국의 성도들을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멀리 지방에서 상경할 기회가 없으셨던 성도들에게 그 분이 빌어 주신 축복을 전한다.

# 비는 여전히 내린다

1940년 8월, 방글라데시에서

비는 여전히 내린다  
인간의 세상, 과도 같은 감각하게  
우리들의 죽음, 과도 같은 세계가 망게  
심자가 에 밝은 1940년 8월, 과도 같이 맹목적으로

비는 여전히 내린다  
도공의 발에 (1) 망자 같은 소리로 변하는 심장의 고동  
소리 와도 같은 소리로 변하는  
무덤을 깃잡는 무덤 같은 말소리 와도 같은 소리로

비는 여전히 내린다  
다만 인간의 적은 인간이 번갈아 하며  
인간의 두뇌가 카인, 마를 한 알레인  
욕망을 양육하는 피의 말 (2)

비는 여전히 내린다  
심자가 에 매달린 굶주린 원경의 발 발에  
매일 낮, 매일 밤, 못을 뛰는 원경의 손이 우리에게  
베푸소서 —  
다이비이즈 에 게나 나사 토이 게나 (2)  
비 아래서는 헛디나 금이 들 감은 것이다,

비는 여전히 내린다  
굶주린 인간의 상처난 열구리에서 매는 이집의  
호르고 있다.  
그의 가슴 속에 모든 상처를 지니고 있다.  
스스로 독숨을 끊은 가슴에서 서서에 사라지는 귀후의  
희미한 불꽃,  
꺼져버린 빛의 상처를 —  
슬픈, 이해하지 못하는 암흑의 괴로움 —  
학대 받는 곰의 괴로움

무력한 몸 에 지키는 사람의 매질을 담하고 있는 눈먼,  
울부짖는 꿈의 고통 —  
줄기는 호끼의 눈물을 —

비는 여전히 내린다

그 때에, 오, 나는 나의 심연계토 돌아가리, 누가 나를  
달려 내리는가!

보라, 보라 그리스도의 피가 창공을 흐르고 있다.

그 피가 우리가 나무 위에 못박은 이마에서 흐르고 있다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 시자의 슬개관과도 같이  
고통으로 검게 탄

세상의 불을 안고 있는 목마른 가슴을 향해 깊이 흐른다.

인간의 가슴과도 같이 한 때는 짐승들 사이에 누여 있던  
어린 아이, 그분의 습성은 들린다.

여전히 나는 그대를 사랑하노라. 여전히 나의 순결한  
빛을 비추노라. 내 피를, 그대를 위하여.

에디트 싯트월

- 1) 마태복음 27장 8절
- 2) 누가복음 16장 19절
- 3) 크리스토퍼 퍼어 달로오 파우스트 박사



## 계보 활동

...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려야 하리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의 오시는 날에 온 땅이 완전히 멸망하리라. (교리와 성약 2장 2-3절)

조셉 스미스께서는 지상에 있는 우리들의 최대 의무가 조상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하였고, 이와 앞에서 인용한 경전 말씀과 같이 주 오시는 날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기록한 사업을 올바르게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신전에서 대리토 의식을 행하여 주르로서 그들에게도 복음에 속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며 구원과 복을 받을 수 있게 함은 물론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죽은 사람들이 없는 우리도 결코 완전해 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계보 사업에 결코 게을리 할 수 없겠습니다.

다행히 한국 선교부에서도 이러한 족보 사업의 의의를 회원 여러분께 주지시키고 본 사업에 참여 시키고자 지방부토 하여금 계보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의 구원과 우리 자신의 완전을 위하여 대단히 희망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본 사업을 계보 위원회를 통하르로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한 도움과 조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적인 생활 여건하에서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계보

사업에 쏟을 여유가 없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만 계속 관심을 갖고 기획만 있으면 조사를 찾으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곤경을 무릎 쓰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족보사업이 희생만을 요구하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부에서 본 위원회를 조직한 지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미숙함 것입니다만 머지 않아 경험을 쌓고 은총을 받아 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확신합니다만 회원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하실 때에 그 발전의도를 더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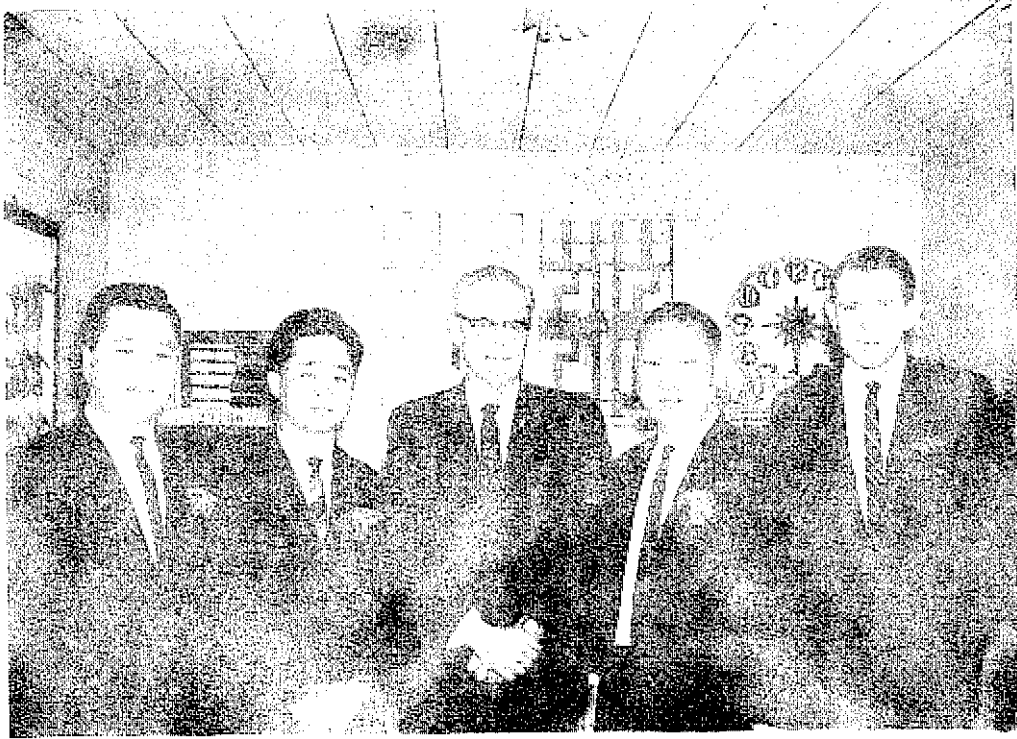
끝으로 미약한 저를 불러 주시고 족보 위원회에서 미력이나마 봉사할 수 있는 기획을 주신 하나님과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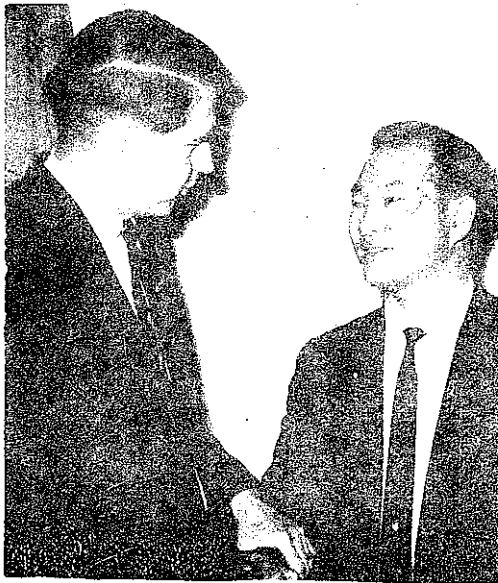
(12페이지의 "예언자 말씀" 계속)

어 진리와 "유덕하고, 사람할만하며 듣기 좋고 칭찬할만함"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게 하는 영감의 안내가 된다. 우리 모든 교사와 생도가 이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조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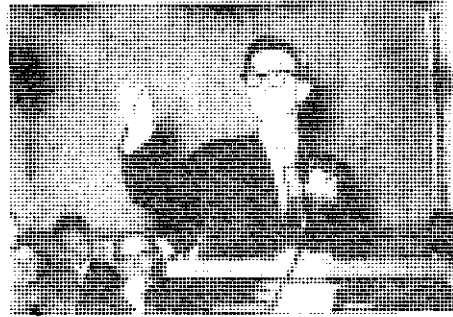




이밤스 사도님 일문 유치원 방문  
(좌로부터 송터실 한인상 이밤스사도 차종환 배일문)



신임 신촌 지역장 정대만 형제외  
약수를 나누시는 배일문 선교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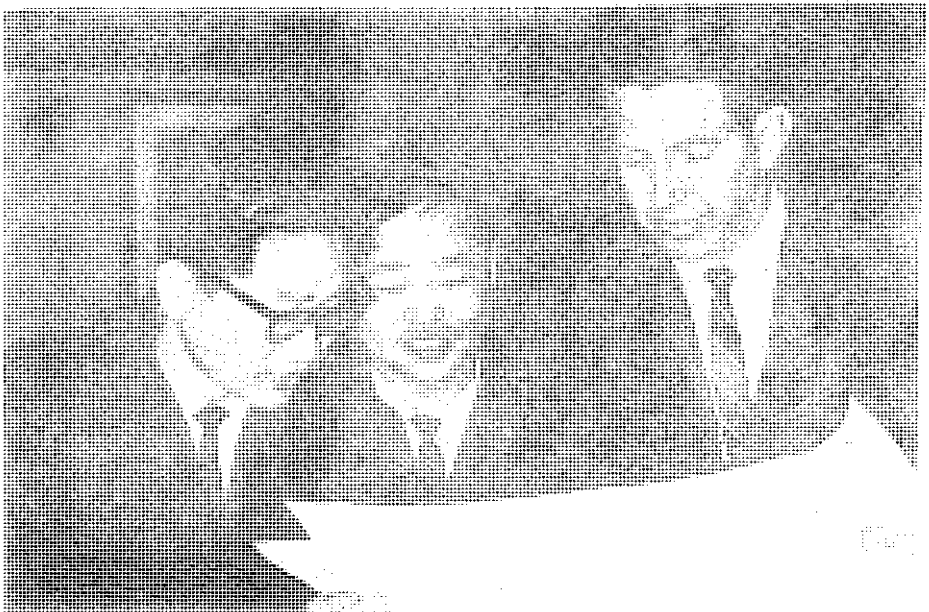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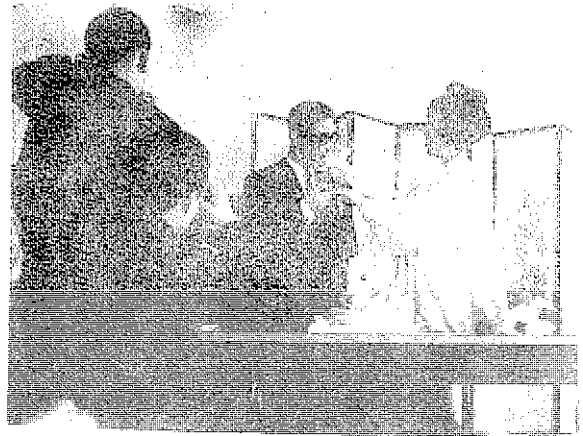
137차 넘차대 회에 참석  
하는 이호남 형제.



결혼 계약은 짜뜨는 순간의  
기요 담 부부

" 꿀 맛 같 억! "

물문경  
출판



# 계시판

## \* 딸 풍년

정미년은 딸 풍년(?) 지난 정월 초하루에 이호남 형제가 딸, 1월 13일엔 김성규 형제가 딸, 3월 7일엔 대구의 도길희 형제가 딸, 그리고 11일엔 한인삼형제가 또 딸을 얻었다. 실로 금년은 이스라엘 장토들에게 있어 딸 풍년인가?

## \* 지영달 형제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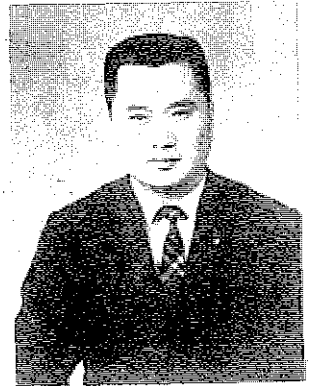
지난 3월 25일 선교본부 대강당에서는 성도 및 가족 친지가 성황을 이룬 가운데 지영달 형제와 이금자 자매의 결혼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로써 금년들어 두번째 볼몬가정이 탄생된 것이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암동 35번지.

## \* 동부지부장 개편

명실 공히 한국 제일의 지부인 동부지부의 지부장으로 새로 임명된 형제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송태섭 형제. 현재 공군 대위로(군의원) 국방부에 근무하면서 그의 탁월한 통솔력과 사람으로 동부지부 운전에 첫 발을 내딛었다. 금년나 이 설흔 둘. 미남 총각인 송 지부장을 맞은 동부지부의 발전을 빈다.



\* 드디어 돌몬경 !!

드디어 돌몬경이 출판. 오랜 오랜 산고 끝에 햇빛을 본 책, 돌몬경. 4월 2일에 서울에서 특별 모임을 갖고 판매하기로 된 돌몬경의 가격은 권에 150원. 기다리던 책이 나왔으니 자, 이제 공부들.

\* 번역실에 세 스탠

"전종철 형제의 이름을 모르는 회원은 신 회원이다." 이는 편집실의 독선적 정의가 아니다. 그만큼 그는 여러 면에서 큰 비중으로 교회활동에 참여해 온 성실한 일군이요. 군에 입대하면서 서울을 떠났던 그가 다시 귀환하여 이번엔 선교부 번역실에서 일하기로 했다.



체제 정비에 들어선 번역실에 전형제 같은 일군이 있게 된 것을 먼저 축하 한다.

\* 이호남 형제 방미

제 137차 연차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게 된 영광의 형제는 이호남. 금번 이호남 형제의 대회 참가는 극동에서 는 최초의 것. 한달의 스케줄로 유타주를 비롯 그 근처를 여행하게 될 이호남 형제는 여행에 그의 부인을 동반하며 샬트레이크 신전에서 한국인 최초로 신전결혼 의식을 가질 계획

이다.

이러한 이 협제의 밤미에 앞서 서울에서는 동부지부에서 합동 상향 회를 열고 이 협제 부부를 초청하여 그 여행의 목적과 의의를 새롭게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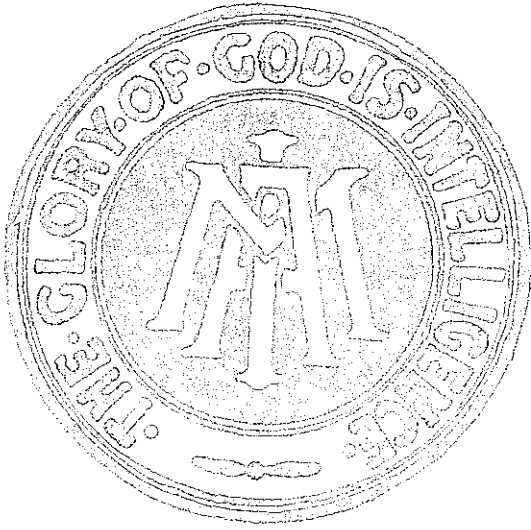
\* 정대관 협제 신혼으로



손확신 협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신촌지역장의 직분에서 해임되어야 했고 그 후임으로 물론동 정대관 협제가 수고하게 되었다. 3월 19일에 있었던 특별 심찬식에서 신촌지역 회원들의 지지를 얻은 것을 끝으로 일단 공식 임명된 꼴을 냈다. 역사가 전공인 정협제는 지방부에서 이름난 실력파. 그의 음악재능은 아카데미칸 데서도 결코 푸토에 뒤지지 않는다. 신촌지역의 축복을!

\* 죽. 리아호나 탄생

여러모로 타 지부의 모범이 되어오던 부산 동구 지부가 이번에는 리아호나라는 지부 잡지를 발행. 심도의 벼를 놀라게 했다. 우선 물론경에 비치는 밤향구 리아호나를 잡자 명으로 한 가지를 높이 사주고 싶다. 리아호나가 동구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 地方部

# 相互向上會

## \* 농구 대회

1967년 4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신교본부 농구코트에서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갖게 되는 지방부 농구대회를 맞아 "성도의 벗"에서는 작년도 우승팀인 삼청팀을 소개하면서 금년 대회의 양상을 짐쳐 보고져 한다.

아마추어들이 벌리는 이 농구의 제전에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도의 테크닉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확기 애애한 분위기가운데서 의철저한 단결력이며 사실상 이것이 승리를 관가슴하게 된다. 작년도 우승팀인 삼청이 물론 개인적으로 우수한 선수를 갖고 있었으나 그보다도 그것을 실전에 구사할 수 있는 단결, 혼련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다. 김광덕, 유흥, 성재준, 김상권, 전수길, 고원웅, 한인삼, 서희철을 선수로 내보냈던 삼청이 금년에도 선전할 수만 있다면 다른 팀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또다시 승리를 거두게

되지 않을가 여겨진다. 금년에도 남쪽지부를 초청하려는 자  
의문이나 서울에서의 승자가 실제의 승자가 되는 확률이 큰  
만큼 사실상 서울 6개팀의 각 축전에서 패자가 결정된다고 봐  
야겠다.

의외의 감자로 등장할 서부에 보다 짜임새 있는 팀워이  
가미된다면 역시 서부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여기에 노  
장선수가 컴백된 원년의 패자 동부가 다크.스토 등잡, 그리  
고 혈기 왕성한 청운이 바람을 몰아 격돌한다면 재미 있는  
쟁탈전이 될 것으로 본다. 삼척의 승률을 5로 본다면 나머  
지 삼개지부에 모두 4를 걸고 싶다.

\* 연 구

1967년 5월 18일 (목요일)

각 지부 상호향상회 연극반 후원

\* 동부 우승

— 지방부 배드민턴 대회에서 —

지난 3월 11일 선교본부 코트에서 작년도 우승 팀인 동  
부를 위시한 서부, 청운, 삼척 4개 지부가 참석할 가운데,  
남녀 단식, 남녀 복식 등 4개 종목에 걸친 배드민턴 대회에  
서 동부지부는 여자 복식을 제외한 전 종목에 석권, 우승을  
차지했다. 남매인 동부의 한지삼 형제와 한혜상 자매는 각  
각 남자 단식과 여자 단식에서 우승을 몰아가 배드민턴 남매  
로 탄생

게임의 결정이었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맞붙은 동부의 한

지상과 서부의 강영길의 경기는 초반 한선수의 방심의 허를 찌른 강선수의 대쉬로 13대 7로 우승을 목전에 놓았으나, 한지상의 착실한 만회를 견제하지 못하여 13대 13 타이틀 허락했다. 류스 5를 태한 강선수를 한선수는 적공, 계속 득점 게임스코어 18대 13으로 승리 우승을 안았다.

재미 있었던 것은, 평소애 한지상을 누르고 있었던 노잠 한인상 형제는 잦아논 우승을 놓쳤다고 입맛을 다시는가 하면 한지상은 그저 좋아서 심글 범글. 그도 그럴 것이 사합 얼마 전에 노잠 선수는 부인의 출산통보를 받고 병원으로 줄달음.

\* 김상호 평의원과 서희철 형제가 지난 3월 16일에서 20일까지 영남지역을 방문하여 성도들의 상호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삼향회 역원들을 찾아 노고를 격려하며 영남지역 삼향회 역원회를 개최하고 돌아왔다.

\* 3월 25일 선교부 감담에서는 복음 전파에 수고가 많으신 선교사님들이 마련한 선교사의 밤이 있었다. 은혜깊은 두꺼비의 이야기들 비롯 이국인이 엮어내는 훈향전 단막극, 노래, 토메디 등등 다채로운 순서를 가지고 우리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 지부消息

(서부 지부)

지난 3월 26일 서부지부는 연중행사인 지부대회를 맞아 포근한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뜻있는 하루를 보냈다. 지부장단에서 일하기로 했다가 대구로 전속된 윤덕순 형제의 후임으로 이찬기 형제가 임명되어 앞으로 서부지부 지부장단은 또 다시 완전한 조직을 갖추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서부지부 상호부조회는 그간 일모임등으로 한푼 두푼 기금을 장만하여 예배당 전면 창을 가리는 황금색 커튼을 마련하여 예배분위기를 한층 더 경건하게 해주었다.

특히 유년 주일학교는 상호부조회에서 선사받은 부활절 계란을 일부 성인들에게 판매하여 유년주일학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4월 5일엔 회원 20명이 야외로 식목을 나가기로 결정되어 있다. (서부지부 기자)

(부산 지부)

교회본부 건축 담당 역원 크리스치앤슨 형제와 극동담당 하딩 형제가 3월 13일 부산을 방문 함으로써 부산지부 건축승인이 완전히 끝났고 이제는 바로 작업에 돌입할 단계. 그간 배영천 지부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영적인 발전을 거듭해오던 부산지부의 큰 경사가 막을 연셈.

이로써 대한민국에서는 두번째로 전형적인 몰몬교회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고, 제 2 대 건축 선교사가 부름을 받을 차례.

(신촌지역에 새 피아노)

지역으로 뻗어온 이래 승승 장구, 발전을 거듭해오던 신촌지역이 이번에는 아름다운 찬송가를 리드합 피아노를 지역 재산 제1호로 구입하기에 이르렀다. 음악에 재질을 갖춘 신임 지역장이 이끄는 신촌 합창단이 곧 탄생할게 아닌가? 특히 신임 지역장이 임명되던날에 첫 선을 뵈는 이 피아노는 모양과 소리가 일견해서 최상급이었고 그 빛깔마저 우아하기 그지 없었다.

(동부지부)

이반스 사도 내외 방편이 3월중의 뉴스. 3월 2일 서울 지역 4개 거부와 2개 지역 및 인천지역 성도들이 운집. 이반스 사도님과 함께 주일학교를 가졌다.

"기획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이를 선용해야 한다." 를 골자로 말씀하신 이반스 사도님과,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의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이반스 자매님의 말씀이 아직도 동부지부에 남아 있다.

3월 15일에는 선교본부에서 사용하던 농구대를 인수받아 훌륭한 농구 코트를 갖게 되었다.

현재 많은 선수가 군문에 입대하여 폐자 탈환의 작업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르나 필승의 훈련으로 완관을 되찾을 셈.

전종열 형제 조용히 군문으로. 논산 어디에 있을 그에게서 연락은 아직 없다.

이 호남 형제님의 첫 딸이 3월 5일 금식 주일에 유아 축복을 받다.

## 編輯後記

엘리웃이 4월을 잔인하다고 한 것은 파라독스의 기능 지수들 압축시켜 폭발시키겠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

그것이 잔인 했거나 자애로웠거나 회생을 역설했다는 데서 "죽어 자빠진 대지에서 움이 싹트고", "매마른 가지에서 싹이 나는" 바로 그 복음의 회복과 일매 상통하는 데가 있다.

사월하고 초 옛새는 교회 회복의 날. 그리고 이 사월에 한국 성교부는 물론경을 낳았다. 오랜 배도의 암흑에서 비로서 인류가 잠을 깨고 찬란한 빛의 회복을 보았을 때 오히려 의지하였고 사월에 돌아난 그 생명을 매질하고 짓밟아 감옥에서 죽게 했다. 그래서 사월을 잔인하다고 하는가?

소경이 잃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세상 만인이 잃게 될 실패로 죽은 것과 같았던 물론경이 이제 이 사월에 살아 난 것이 정말로 잔인한 것일까? 전 성도가 잠을 깨어나야 성도의 빛이 또 잠을 깨고 푸트러 오르는 저 언덕을 달려 나갈 수 있을 텐데 .... 안일한 성도의 잠을 깨는 잔인한 사월이어도, 잔인한 사월이어도, 나는야 사월이 좋아.

피곤한 눈이 술개의 흠을 좇아도 성도의 빛은 사월을 쉬지 않았다. 사월이 성도의 소망의 달이 되기를 빈다. (인)

(편집실)